

##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er Bullying/Victimization of Adolescent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배 아 영  
교 수 이 숙

Dept.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course : Bae, A-young

Professor : Lee 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er bullying/victimization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first-grade children.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erceived lower 'appearance', and 'cognitive ability' scores than the medium. Second, aggression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direct and relational bullying, while withdrawal was the main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direc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in the children. In conclusion,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peer bullying/victimization.

**주제어(Key Words):** 또래괴롭힘(peer bullying/victimization), 개인적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 공격성(aggression), 위축(withdraw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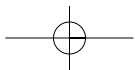
#### 1.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학업 및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청소년들 사이의 또래괴롭힘 현상은 청소년기에 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

달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상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올려져,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도 따돌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례들로 보고 되고 있다(양정호, 2004).

또래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Olweus, 1991), 여기서 부정적 행동(negative action)이란 크게 직접적

Corresponding Author: Sook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3 Fax: 82-62-530-1329 E-mail: sookleej@hanmail.net



괴롭힘(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과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form of peer victimization)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Crick & Bigbee, 1998).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중에서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직접적 괴롭힘(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표적 청소년의 사회생활을 방해하여 고립시키는 관계에서의 괴롭힘도 직접적 괴롭힘 못지않게 커다란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의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두 유형을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래괴롭힘 관련 연구들에서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도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또래괴롭힘을 받은 피해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고(Perry, Kusel, & Perry, 1988) 자신에 대한 취약감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불행함이나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도현심, 2000; 최보가, 임지영, 1999). 이에 반해 또래괴롭힘의 가해청소년은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며(Olweus, 1978), 주로 학업에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학우, 교사,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한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 가며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고 또래괴롭힘이라는 형태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박병기, 1999). 이렇듯 또래괴롭힘의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또래괴롭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청소년의 성과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Crick & Bigvee, 1988; Crick, Casas, & Ku, 1999; Crick & Gropeter, 1996).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보고들(이점숙, 유안진, 1999; 임지영, 1998; 이춘아, 2001; Crick & Gropeter, 1996)이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관계적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황성숙, 1999; Crick & Gropeter, 1996)도 있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을 가해와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하위유형별로 성차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위유형별로 성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효율적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과 관계가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 행동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관련되어 연구된 주요한 개인적 특성으로는 외모,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을 들 수 있다. 먼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외모를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외모적으로 매력 있는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고 있었다(Kleck, Richardson, & Ronald, 1974).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모 변인과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또 다른 변인으로 인지적 능력 또는 학업성적을 들 수 있다. 또래괴롭힘과 학업성적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학업성적은 또래괴롭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tsche & Knoff, 1994; Coie & Dodge, 1988; Green, Forehand, Beck, & Vosk, 1980). 즉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위축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또래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춘아, 2001; 조샘이, 2001). 이렇듯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청소년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의 피해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고양시켜 스트레스를 증폭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의 가해아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능력 역시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또래괴롭힘 가해와 신체적 능력간의 정적 관계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크고 강하다는(Olweus, 1993)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가해가 신체적 우월감을 획득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은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보복을 잘 하지 못하므로, 공격자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에게 더 자주 공격을 가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Graham과 Juvonen(1998)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아들은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신체 허약에 귀인하였다.

이외에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개인적 변인은 행동적 특성으로서 공격성과 위축을 들 수 있다. 먼저 공격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일관되게 가해아의 높은 공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공격성향이 높은 아동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도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가해에 관여할 가능성

이 크다고 볼 수 있다(서미정, 김경연, 2004; 이상균, 1999; Bernstein & Wastson, 1997). 그리고 피해아들의 공격성도 높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공격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지며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짜증나고 긴장하게 하므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최진희, 2000). 즉,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 가해아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아의 특성 과도 관련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축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아동이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울고 위축되며 자존감이 낮았다(이경남, 2001; 이점숙, 유안진, 1999; Olweus, 1978; Perry *et al.*, 1988; Schwarz, Dodge, & Coie, 1993). 또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10~20%정도가 위축된 행동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가해아로부터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다고 밝혀지고 있다(Berk, 1997). 즉 이러한 피해아동들은 공격적 아동에게 더 쉽고 만만한 상대로 보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며 가해아의 공격행동을 강화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하위영역을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누어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의 하위영역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1) 남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여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또래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한다고 느끼는 연령이 초등학교 후기와 중등학교 시기인 10~14세로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Hoover *et al.*, 1992),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40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표본추출을 위해 광주시 소재 중학교 5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두 학급씩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선정된 표본의 수는 400명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고 이중 기재되어 있는 질문지 109부를 제외한 291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남학생이 151(51.9%)명이고 여학생은 140(48.1%)명이었다.

### 2. 조사도구

#### 1) 또래괴롭힘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또래괴롭힘을 가해척도와 피해 척도로 나누고 2개의 하위유형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또래괴롭힘 척도는 최은숙(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 이춘아(2001)가 Perry, Kusel(1988)의 또래지명 척도(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와 Crick, Grotpeter(1995)의 또래보고식 사회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척도들을 참조하여 가해 척도 18문항(직접적 괴롭힘 10문항, 관계적 괴롭힘 8문항), 피해 척도 18문항(직접적 괴롭힘 10문항, 관계적 괴롭힘 8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또래괴롭힘 척도는 아동학 전공교수 2인과 대학원생 3인에게 의뢰하여 척도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받았다. 또래괴롭힘 척도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의 가해 또는 피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직접적 가해가 .80, 관계적 가해가 .83, 직접적 피해가 .75, 관계적 피해가 .80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척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척도는 외모,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외모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하위영역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에 기초해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한 이은혜와 신숙재, 송영주(1992)의 척도를 참조하였고,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 하위영역은 아동·청소년 행동평정척도인 K-CBCL을 참조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척도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외모,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동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적 특성(공격성, 위축)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각 영역별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외모는 .73, 인지적 능력은 .75, 신체적 능력은 .70,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은 공격성이 .76, 위축이 .74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성에 따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먼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만이 중간점수(3.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외모, 인지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에 대한 지

각은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능력 변인(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능력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지각을 했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구정화, 1994; 김미란, 2002; 김치영, 1987; 이진화, 1993; Harter, 1982; Nottleman, 1987)와 일치한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모, 인지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은 가해 및 피해가 중간수준 이하였으나 가해 점수가 피해점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하위요인들에서도 모두 평균점수가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에서는 직접적 괴롭힘(2.32)이 관계적 괴롭힘(2.1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피해에서는 직접적 괴롭힘(2.08)과 관계적 괴롭힘(2.07)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해 전체(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접적 가해(p<.001)와 직접적 피해(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접적 괴롭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lt;표 1&gt; 개인적 특성의 일반적 경향

(N=291)

변 인			전 체		남 (N=151)		여 (N=140)		t값
			M	SD	M	SD	M	SD	
개인적 특성	외 모		2.92	0.74	2.98	0.71	2.85	0.78	1.47
	인지적 능력		2.83	0.69	2.90	0.70	2.76	0.67	1.65
	신체적 능력		3.17	0.60	3.24	0.52	3.09	0.67	2.14*
행동적 특성	공격성	2.74	0.63	2.78	0.65	2.68	0.59	1.32	
	위 축	2.40	0.64	2.45	0.62	2.34	0.65	1.46	

\*P&lt;.05

&lt;표 2&gt;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

(N=291)

변 인			전 체		남 (N=151)		여 (N=140)		t값
			M	SD	M	SD	M	SD	
또래괴롭힘	가 해	직접적	2.32	0.65	2.44	0.62	2.19	0.65	3.29***
		관계적	2.16	0.75	2.11	0.66	2.21	0.84	-1.10
		전 체	2.25	0.62	2.29	0.57	2.20	0.67	1.29
	피 해	직접적	2.08	0.56	2.19	0.63	1.97	0.44	3.49***
		관계적	2.07	0.58	2.07	0.65	2.06	0.49	0.14
		전 체	2.07	0.51	2.14	0.58	2.00	0.40	2.19*

\*P&lt;.05, \*\*\*P&lt;.001

점수를 산출했고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들로부터 직접적이고 외현적인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박연정, 2002; 이점숙, 유안진, 1999;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 Oliver & Hazler,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차츰 관계적 괴롭힘의 양상이 성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성별로 산출한 것은 <표 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종속변인인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17~.69의 범위에 있다. 남학생의 가해경험은 공격성, 신체적 능력, 외모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피해경험은 위축,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고 외모, 인지적 능력과는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종속변인인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53~.64의 범위에 있다. 여학생의 가해경험은 공격성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피해경험은 위축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외모,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또래괴롭힘 가해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4> 참조), 남학생의 경우 직접적 가해에는 공격성( $\beta=.67$ ), 직접적 피해( $\beta=.12$ )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표 4> 남녀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가해의 회귀분석 결과 (N=2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F	R <sup>2</sup>
남학생	직접적 가해	공격성	.64	.67	72.31***	.49
		직접적 피해	.12	.12		
여학생	직접적 가해	공격성	.47	.47	41.83***	.22
		관계적 가해	.47	.47		
남학생	관계적 가해	공격성	.67	.61	83.38***	.38
		관계적 가해	.76	.54		

\*\*\*p<.001

<표 5> 남녀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피해의 회귀분석 결과 (N=2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F	R <sup>2</sup>
남학생	직접적 피해	위축	.31	.31	15.37***	.24
		외모	-.21	-.23		
	관계적 피해	외모	-.30	-.33	17.85***	.27
		위축	.29	.28		
여학생	직접적 피해	위축	.27	.41	27.04***	.16
		관계적 피해	.33	.44		

\*\*\*p<.001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직접적 가해의 총 49%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공격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피해를 많이 지각할수록 직접적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관계적 가해에 있어서는 공격성( $\beta=.47$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관계적 가해의 총 22%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공격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관계적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3>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291)

	1	2	3	4	5	6	7	8	9	10	11
1. 외모		.53**	.38**	.03	-.52	.03	.09	.06	-.26**	-.31**	-.33**
2. 인지적 능력	.50**		.34**	.05	-.53**	.01	.10	.06	-.23**	-.17*	-.23**
3. 신체적 능력	.48**	.18*		.37**	-.25**	.16	.13	.16	-.19*	-.19*	-.22*
4. 공격성	.16*	.06	.47**		.12	.61**	.54**	.63**	.04	.06	.06
5. 위축	-.25**	-.31**	-.15	.11		-.00	-.04	-.02	.41**	.44**	.48**
6. 직접적 가해	.14	.05	.35**	.69**	.01		.65**	.91**	.12	.11	.13
7. 관계적 가해	.17*	.08	.31**	.47**	.09	.59**		.91**	-.01	.08	.04
8. 가해 전체	.17*	.07	.37**	.66**	.05	.91**	.87**		.06	.10	.09
9. 직접적 피해	-.27**	-.19*	-.06	.18*	.37**	.24**	.05	.22**		.51**	.88**
10. 관계적 피해	-.36**	-.21**	-.11	.12	.38**	.18*	.19*	.21*	.64**		.85**
11. 피해 전체	-.35**	-.22**	-.09	.16*	.41**	.23**	.19*	.24**	.92**	.88**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학생, 오른쪽은 여학생에 해당함.

\*p<.05, \*\*p<.001

여학생의 경우 직접적 가해에는 공격성( $\beta=.6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직접적 가해의 총 38%를 설명하고 있었다. 관계적 가해에 있어서도 공격성( $\beta=.54$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적 가해의 총 29%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공격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와 관계적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5) 참조, 남학생의 경우 직접적 피해에는 위축( $\beta=.31$ ), 직접적 가해( $\beta=.27$ ), 외모( $\beta=-.23$ )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직접적 피해의 총 24%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위축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모를 낮게 지각할수록 직접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적 피해에 있어서는 외모( $\beta=-.33$ ), 위축( $\beta=.28$ ), 직접적 가해( $\beta=.22$ )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관계적 피해의 총 27%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외모를 낮게 지각할수록, 위축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를 많이 지각할수록 관계적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 직접적 피해에는 위축( $\beta=.4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직접적 괴롭힘의 총 16%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위축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피해에 있어서도 위축( $\beta=.44$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관계적 피해의 총 19%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위축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강할수록 관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을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성에 따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주요 변인으로 청소년의 외모,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체적 능력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외모, 인지적 능력,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에 대한 지각은 낮게 나타났는데, 외모에 대한 지각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낮은 지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지적 능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학업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김미란, 2002). 그리고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에 대한 지각은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겠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능력 변인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는데, 이는 신체적 능력 자체가 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있어서는 가해 및 피해가 중간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었지만 가해점수가 피해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해에서는 직접적 가해가 관계적 가해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피해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관계적 피해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또래에게 관계적인 괴롭힘보다는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직접적 괴롭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피해 전체, 직접적 가해, 직접적 피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보고들(이해경, 김혜원, 2001; Rigby & Slee, 199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해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얻긴 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남학생들은 직접적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관계적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들(황성숙, 1999)은 성에 따른 피해경험의 수준은 또래괴롭힘 하위유형별로 다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관계적 괴롭힘의 평균 점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계적 괴롭힘과 관련해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자신의 내면적 문제와 학교생활에 장애를 주고 큰 문제가 된다는 연구들(이점숙, 유안진, 1999; Crick & Grotpeter, 1995)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해를 살펴보면, 남학생에 있어서 직접적 가해에는 공격성, 직접적 피해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직접적 가해의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적 가해에는 공격성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22%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있어서는 직접적 가해에는 공격성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가해에도 역시 공격성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접적 가해와 관계적 가해에 있어 공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를 살펴보면, 남학생에 있어서 직접적 피해에는 위축, 직접적 가해, 외모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직접적 피해의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적 피해에는 외모, 위축, 관계적 가해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관계적 피해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를 괴롭히는 학생은 자신도 괴롭힘을 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가해와 피해는 밀접하게 상호작용 한다는 선행연구(Egan, 1988; Perry, 1988)들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여학생에 있어서는 직접적 피해에는 위축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피해에도 역시 위축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접적 피해와 관계적 피해에 있어 위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나 인지적 능력에 대해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모,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획일화된 미적 기준이나 외모중심 가치관 대신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과 동시에 학업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존중하고 인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이라 하겠고, 또래괴롭힘 피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적 특성(공격성, 위축)을 완화시키고 적응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해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 공격성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과 더불어 직접적 피해의 경험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피해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 위축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위축과 더불어 직접적 또는 관계적 가해의 경험과 외모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나 성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직접적 피해에 있어서는 위축이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적 피해에 있어서는 외모가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도방침을 성에 따라 다르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는 상반되는 특성이 아니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가해와 피해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양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대상을 가해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의 청소년들이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또래괴롭힘에 대한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광주광역시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조사대상을 표집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괴롭힘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보고식, 또래보고식, 교사보고식 검사도구 사용 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적 특성의 척도와 또래괴롭힘 척도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셋째, 또래괴롭힘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선정한 개인적 특성 변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변인, 학교나 지역 사회 환경 변인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괴롭힘 가해아와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 집단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특성 및 효율적인 지도 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초기 청소년기로 한정하여 알아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청

- 소년연구, 19.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2001).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 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박병기(1999). "집단괴롭힘 해소방안에 관한 실천적 연구", 강원교육의 현장진단과 대안, 대하가의 협력연구논문, 9,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179-273.
- 박연정(200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양정호(2004). "중학생의 왕따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제 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발표 자료집, 16-46.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진화(1993).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 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해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샘이(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집단별 관련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은숙(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1999).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tsche, G. M., & Knoff, H. M.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3(2), 165-174.
-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 (4th)*, Allyn and Bacon.
- Bernstein J. Y., & Was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oie, J. D., & Dodge, K. A. (1998). Multipul source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 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Crick, N. R., Casas, Juan F., & Ku, Hyon-chin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 psychology*, 35(2),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_\_\_\_\_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Graham, & Juvonen. (1998). Self-Blame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 Psychology*, 34, 294-314.



- Green, K. D., Forehand, R., Beck, S. J., & Vosk, B. (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_\_\_\_\_ (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leck, R. E., Richardson, S. A., & Ronald, L.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Social relations, and Social Psychology, 28*, 321-322.
- Nottel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_\_\_\_\_ (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2005년 11월 25일 접수, 2006년 2월 13일 채택)